

전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 본격화 한다

저수지 개보수·기계화 경작로 추진
총 7개 분야에 사업비 2152억 투입
안전한 영농생활·농업 생산성 기대
재해 예방으로 도민 생명·재산 보호

전남도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리시설과 기계화 경작로 등 7개 분야에

2152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영농활동으로 시행이 지연됐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저수지 개보수 및 준설, 양·배수장, 용배수로 정비, 흙수로 구조물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호우와 도깨비 장마, 슈퍼태풍 등 재해로 기존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50년 이상된 시설이 많은 저수지는 자연

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32지구에 839억원을 들여 노후 저수지의 제당, 물넘이, 사통·복통 재설치, 사전방류수문 설치 등 시설 개량과 기능이 저하된 양수장과 배수장을 개선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한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도 영농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착수한다.

올해 연말까지 40개소에 총 210억원을

들여 126만㎡의 토사를 준설, 저수지의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에게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8지구 253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3지구 158억원을 투입해 계속해 추진하고 있다.

용·배수로를 개량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54지구 464억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266지구 96억원을 투입해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13지구에 132억원을 투입해 81.46km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재해 예방 능력을 배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와 흙수로 구조물화 등을 적기에 보수·보강해 2025년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서 국내 최대 ‘컴퓨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개최
25~26일 광주과학기술원·DJ센터

국내 최대 규모의 컴퓨터 프로그램 경진대회인 ‘한국코드페어’ 본선이 광주에서 열린다.

24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 역량 함양을 위한 ‘제6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를 25일과 26일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디지털세상, 우리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작품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공모전’과 제시된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해커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공부방’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공모전’은 지난 8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중·고등학교 각 30팀씩 총 90팀이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본선을 치른다. 본선에 오른 90팀은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발표하고, 초·중·고등부 각 10팀씩 최종 30팀을 뽑는다.

‘해커톤’은 예선을 거쳐 30팀(중·고등학교 각 15팀)이 본선에 올라 26일 공개되는 주제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해결책을 제시한다. 30팀 중 12팀(중·고등부 각 6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소프트웨어공부방’은 한국코드페어 누리집(www.kcf.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을 연계한 사전행사인 ‘광주 AI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본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5일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의 슈퍼컴퓨팅센터 견학과 인공지능(AI)+드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작곡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 유튜브 ‘궤도’의 강연도 마련된다. ‘궤도’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 어디까지 왔을까?’ 주제로 25일 오후 4시 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사전 신청(https://vvd.bz/fOJs)을 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 서구청 정오의 책방

‘제10회 책향기 서구 책 축제’가 24일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려 시민들이 지역서점과 함께 하는 ‘정오의 책방’에서 한강 작가 도서 판매, 내가 찜한 책 전시 등을 둘러보고 있다. 개막식은 26일에 열린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서 인공지능 스타트업·투자자 ‘한 자리에’

AI사업단, ‘파트너십 데이’ 성료
스타트업 참여...투자 상담 진행

광주에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 사업단)은 24일 광주 힐스테이트 호텔 컨벤션홀에서 ‘AI 파트너십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AI 파트너십 데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사업단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혁신적인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AI 창업 경진대회, AI

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성장 중인 글로벌(주), ㈜하마다랩스, 맨인블록(주), ㈜헤리티지아이티, ㈜에이아이파크, ㈜퓨티, ㈜캡스, ㈜와이와이소프트, ㈜에스엘즈, 한국답러닝(주) 등 10개의 유망 AI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오디오 탐지, 헬스케어 AI 상담 에이전트, AI 기반 동영상 제작 솔루션 등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자 스타트업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사업 모델 검증 및 투자 유치 멘토링을 통해 IR 역량을 강화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실질적인 피드백 받고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40여 개의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가 참여해 스타트업들의 투자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며 협업 및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다수의 팁스(TIPS) 운영사들이 참석해 AI 스타트업들과 일대일 투자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투자 유치 기회를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AI 스타트업 제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어, 투자자들이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오상진 AI 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킹과 투자 기회를 제공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오늘 ‘ESG 경영 정책 포럼’ 개최

광주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ESG 경영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중소기업의 ESG공급망 대응과 지속가능한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타 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경영) 지원사업,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행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인,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하며,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최정석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장의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지원’ △봉민수 스마트에코(주) 연구원의 ‘광주시 청정공정 확산사업 수행 사례’ △오병운 (주)첨단랩 이사가 ‘오존 및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저감 대기오염방지 솔루션’

선’ △대학생기자단 씨드림의 ‘기아챔피언스필드 일회용품 감소를 위한 시민 실천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좌장으로 흥나순 광주시창업진흥과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재현 기업은행 수석 컨설턴트, 조동민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장, 장윤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장, 오병운 (주)첨단랩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중소기업의 ESG 공급망 대응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